



입추(立秋)인 7일에도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날 광주 동구 충장로 앞 도로에서 지열로 인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3년만에 최장 폭염 덮치나

광주·전남 이틀간 37도 넘어 '1994년 7월' 갈아치울 기세
내일 '절끔 비' 뒤 다시 찜통

광주·전남 지역에서 연일 펼칠 끓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역대 최악의 폭염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처럼 폭염이 연일 이어진 해는 이례적으로 폭염이 덮친 지난 1994년 이후 23년 만이다.

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낮 최고 기온이 37도가 넘는

'역대급' 무더위가 진행되고 있다. 기상청 통계를 살펴보면 올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를 가늠할 수 있다. 1973년 기상청 관측 이래 최고로 더웠던 해는 1994년 7월이었다. 당시 광주·전남 지역은 37도를 웃돌았던 일수가 7일이나 됐다. 이어 2016년 4월, 1983년 3월, 1990·2013·2015년에는 각각 2일씩 기록했고 뒤이어 2012년과 1981년 한 차례씩 37도를 넘어섰다.

또 광주의 역대 최고기온은 38.5도로, 1994년 7월 19일 기록했다. 이어 지난 2012년 7월 5일에는 37.7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폭염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지난 6일에는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인

37.3도를 기록했다는 데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올 들어 35도를 넘나드는 고온이 연일 계속되고 있으며, 37도를 넘는 역대급 폭염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해남이 37.2도를 기록한 데 이어 6일 광주 37.3도, 해남 37.2도, 강진 37도 등 이틀에 걸쳐 37도를 넘는 더운 날씨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이 아직 25일 가량 남아 있어 역대 최고 더위 기록을 경신할지도 관심이다.

현재 추세라면 지난해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37도를 넘긴 기록을 넘어 서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하는 한해로

기록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상청은 올 들어 유독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에 대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돼 광주·전남을 뒤덮고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지 못하는데다가, 구름 사이로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지면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상청관계자는 "9일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다"면서 "비가 내리면서 아주 잠깐 더위가 식겠지만 비가 그친 다음날부터는 다시 고온다습한 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장휘국 광주교육감 "임용 절벽' 10년 이상 장기화 될 수도"

광주 지역의 초등학교 '임용 절벽'이 10년 이상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됐다. 올해 공립 초등학교 교원을 5명만 뽑는데 이어 중등학교도 과목별 선발 인원이 격감, 교사 임용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7일 초등학교 '임용절벽' 현상이 10년간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금부터 10여 년 가까이 임용 숫자가 없을 수 있다"며 "매년 정년퇴직자가 10여 명 안팎으로 예상돼 초등학교

인원을 더 감축해야 할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장 교육감은 신규채용 인원이 5명으로 급감한데 대해 "광주교육대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고 책임에 대한 공감을 느낀다"며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 신규교사 채용 인원을 줄여왔으나 결국 교대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많은 우려를 가져오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중등교원 임용 숫자도 격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유치원 25명, 초등 5명, 특수 5명 등 35명의 초·중·고 임용 가배정 인원과 함께 교과 40명, 특수

3명, 보건 4명, 영양 1명, 사서 2명, 전남상담 15명 등 중등임용 가배정 인원 65명을 사전 예고했다.

중등임용 대상자들은 과목별 선발 인원이 너무 적어 삼수·사수가 일상이 되는 등 수년 전부터 사실상 '임용 절벽'이 현실화됐다는 불만 섞인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광주지역 중등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영어·수학 과목 각각 2명을 비롯해 대부분 2명이며 도덕·윤리, 음악, 미술 등이 3명, 체육 8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국교육대학생연합 "1수업 2교사제 도입 반대"

문재인 정부 공약인 '1수업 2교사제'를 조기에 도입해 초·중·고교사를 더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 전국 교대생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7일 성명서를 내고 "1수업 2교사제는 교사 간 교육관 충돌, 학생지도 혼선, 비정규직 강사 양성 등의 우려가 있어 학교 현장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면서 "교사 선발인원을 늘리기 위한 졸속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대련에는 전국 교대 10곳과 3개 대학 초·중·고 교육과 학생회 등 13곳이 소속돼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7 몰림 19:49
해질 19:29 달질 05:58



구름 사이 폭염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 많음	26/32	보성	구름 많음	24/31
목포	흐림	26/31	순천	구름 많음	26/34
여수	구름 많음	27/32	영광	구름 많음	25/32
나주	구름 많음	24/32	진도	가끔흐리고 비	25/31
완도	가끔흐리고 비	26/32	전주	구름 많음	25/33
구례	구름 많음	24/32	군산	구름 많음	25/33
강진	흐림	24/32	남원	구름 많음	24/33
해남	가끔흐리고 비	25/32	속산도	가끔흐리고 비	24/30
장성	구름 많음	24/3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	남동~남 0.5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	남동~남 0.5~1.5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	서~북서 0.5
서부 앞바다(동)	서~북서 0.5~1.5	서~북서 0.5~1.5
서부 앞바다(서)	남서~서 1.0~1.5	남서~서 1.0~1.5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8:01	02:45
	19:57	14:30
여수	간조	만조
	03:27	09:20
	15:19	21:56

◇주간 날씨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	☀	☀	☀	☀	☀	☀
25/32	25/32	24/33	25/32	25/32	25/30	25/32

◇생활지수

- 위험
- 식중독
- 높음
- 자외선
- 높음
- 피부질환

"수능 절대평가 중위권 유리" 53.8%

고3 수험생 623명 설문
"등급상승 효과" 때문
'상위권 유리' 19.7%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고3 학생들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중위권 학생들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고3 학생들은 올해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뀌는 첫 수능을 치른다.

7일 입시전문업체 진학사가 지난달 11~13일 고3 회원 6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3.8% (335명)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시 '중위권 학생'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상위권 학생'이라는 응답자가 19.7% (123명)였고, '아무도 없다' 7.9% (49명), '하위권 학생' 7.7% (48명), '모든 학생' 6.9% (43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절대평가로 중위권 학생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본 이유는 이들이 '등급상승 효과'로 1등급으로 올라갈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때문이다.

상대평가에서는 1등급 기준선이 원점수 기준 95점에 형성되면 91~94점도

2등급을 받지만, 절대평가(원점수 90점 이상 1등급)가 이뤄지면 1등급을 받는다고.

전과목 절대평가로 가장 불이익을 당하는 이들은 상위권 학생이 꼽혔다. 절대평가가 누구에게 가장 불리하겠느냐는 질문에 58.9% (367명)가 '상위권 학생'을 꼽았고, '하위권 학생' (15.1%·94명), '중위권 학생' (10.1%·63명), '모든 학생' (6.1%·38명) 순이었다. 불리한 학생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대답도 각각 3.9% (24명)와 5.9% (37명) 있었다.

현행 교육제도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수능을 포함한 대입제도'라는 의견이 41.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학 서열화 (24.2%), 초·중·고 교육과정 (16.2%), 교사의 역량과 학생에 대한 태도 (13.2%), 학생의 학업의지와 선생활에 대한 태도 (3.2%), 학교 시설 등 물리적 환경 (2.1%)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진학사 황성환 실장은 "수능 절대평가 가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라며 "수능까지 10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유불리를 너무 걱정하기보다 어떤 점이 변화할지 예상해보고 이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는 오천경매와 함께 하십시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